전주푸드 직거래 장터 개장

전주시, 추석맞아 오늘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신선 농산물 등 판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주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전주푸드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와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여름 내내 지속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전주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7일 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추석맞이 전주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직거래 장터에는 포도와 배, 복숭아, 자두 등 전주에서 생산된 과일류 등 각종 신선농산물과 선물세트가 판매된다.

특히 지역 농가에서 손수 재배한 농산물들을 한데 모아 상차림 2종(3만원, 5만원)과 건강잡곡 2종(3만원, 5만원), 과일(배, 복숭아) 등 총 다섯 종류로 구성한 선물 꾸러미 세트도 판매된다.

상차림세트는 추석 차례상에 오를 삼색나물과 전, 국 등을 조리할 수 있는 각종 농산물과 소고기(상차림 2) 등으로 구성됐으며, 잡곡세트는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각종 잡곡들을 한데 모았다. 또, 전주에서 생산된 당도 높고 맛 좋은 배와 복숭아, 사과, 포도 등의 과일선물세트도 판매된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장터 이후에도 농산물의 가격 진폭시기와 명절성수기, 김장시기 등에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착화감 상승 슬립온 슈즈

6일 오전 서울 롯데마트 청량리점에서 모델이 남성/여성 국민 슬립온 슈즈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업 협력사 일자리 지원

전북중기청, 대출금리 낮추고 보증비율 100% 확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6일부터 구조조정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해운 협력사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낮추고(2.4~2.6%) 보증비율은 확대(85→100%)하는 등 보증요건들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조선사와 수주관계에 있는 협력사에게는 3억 원까지, 조선업 단순 기자재 제조기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피해업체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등에게는 5,000만원까지, 조선·해운 관련업체에서 퇴직한 자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조선 협력사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기존 연체가 있던 기업이라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사실이 모두 정리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대출금을 보유한사실이 있을 경우 등은 보증 제한키로 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구조조정 피해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금공급이 경색되지 않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확대를 통해 금융기관 등과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기업, 농협, 우리,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7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하림, 온라인 쇼핑몰 '하림마켓' 전면 리뉴얼

㈜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이 "온라인 쇼핑몰 '하림마켓(www.harimmarket.com)'을 전면 개편해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쇼핑몰 개편이 인근 대리점을 통한 당일 배송 서비스, 모바일 콘텐츠 강화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상품 노출 방식이다. 기존의 좁고 긴 레이아웃 방식을 탈피해 소비자가 한 눈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넓은 가로 형태로 구성했다. 모바일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모바일에서도 간소화된 메뉴가 아닌 PC와 동일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림마켓에 추가된 생활밀착형 020(Online to Offline) 주문 프로세스인 '매장 배송 서비스'은 단연 주목할 만 한 변화다. 상품 구매 시 유료로 매장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지역권에 있는 대리점에서 당일 배송을 진행하는 신개념 배송 서비스다. 하림은 당일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하림은 소비자를 위한 각종 프로모션과 시즌에 맞는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하림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매일 인기제품을 선정해 시간에 따라 특가 판매하는 '투데이픽(Today Pick)'도 주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하림마켓 리뉴얼 오픈을 기념한 이벤트도 9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최근 출시한 하림의 간편식 브랜드 '밥은 요리다'의 '안동식 찜닭 볶음밥(450g)', '춘천식 닭갈비 볶음밥(450g)', '황등식 비빔밥(430g)' 중에서 2종 묶음 주문 시, '부추잡채 김말이(200g)'와 '고추잡채 김말이(200g)'를 무료로 증정한다. 또한 하림 '포장마차식 양념닭발(300g)' 2종 구매 시에는 '포장마차식 양념근위(300g)'를, '춘천식 순살 닭갈비(300g)' 매운맛과 순한맛이나 'IFF 닭가슴살(1kg)' 구매 시에는 '만능다짐육(500g)'을 추가로 제공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추석 귀성 시작되는 13일부터 교통 관리 나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귀성 혼잡 대비 감속차로 연장·임식갓길 차로 운영 등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문명국)는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동안 교통소통관리에 나선다.

이번 추석연휴 기간 전북권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약 31만대로 전년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석당일날인 15일에는 약 46만대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귀성은 13일 오후 1시, 14일은 오후 8시, 귀경은 16일 09 ~ 24시, 17일 09~20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소 기준 서울~전주 간 평균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짧은 귀성기간으로 인해 6시간, 귀경의 경우 교통량분산으로 4시간 1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익산장수선 익산분기점과 호남지선 논산나들목 진출램프 감속차로를 연장해 진출차량을 신속 운행케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해안선 동서천분기점~군산나들목 구간에 승용차 임시갓길 차로를 운영, 몰리는 구간에 본선 통행속도 증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추석연휴 휴게소 직원화장실(120칸)을 개방하고 임시화장실(14칸)을 운영해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교통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차량점검 및 쓰레기봉투 준비와 더불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및 졸음운전 사고예방 등 안전운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2차 도내 농·생명기업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6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2차 전북 농생명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앤코스메슈, 아리울현푸드, 비케이시, 착한음식, 건지와 사람 등 전북 농생명기업 대표 및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과 창업기업지원 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 계획 등을 주요 논제로 놓고 토론했다. 또한 탄소와 농생명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교환했다.

앤코스메슈 김일광 대표는 "인터넷/모바일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꾸준히 모니터하고 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세미나를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착한음식 김수석 대표는 "전북 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창업기업지원 펀드를 통해 많은 전북 기업이 큰 성장을 이루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협회 전북본부는 오는 8일 탄소기업 대상 '제4차 탄소기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jb.kita.net)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예비창업자 온라인 마케팅 교육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9~28일까지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분야는 소셜콘텐츠, 페이스북, 블로그, 동영상 활용 마케팅이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영세해 마케팅에 대규모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 혼자서도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노하우 전수에 중점을 뒀다.

게다가 온라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SNS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룰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개발공, 부채관리 역량강화

공공임대주택관련 채무 높아

전북개발공사는 부채관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6일 전북개발공사에 따르면 2015년 12월 현재 공사의 재무현황은 자산 7,151억원, 부채 5,247억원, 자본 1,904억원 등으로 총 275.4%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채가 5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일단 공사는 2016년 경영목표인 매출액 1,298억원, 당기순이익 180억원 등 흑자 수익구조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모항 관광진흥 개발기금 조기상환(2016년 46억원) 및 만성공사채 400억원 적기상환(2017년)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익산 배산) 조기분양을 실시해 2017년까지 230%이내로 부채를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혁신 만성 분양대금 회수와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부채 감축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구독문의 288-9700